

김신욱, 자메이카 상대 머리로 두 골 “감독님 보셨죠?”

평가전서 동점골·역전골 폭발…2-2 무승부
몰도바전 이어 A매치 3경기 연속골 눈도장



196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29·전북 현대)의 높이가 또 빛났다. 김신욱은 30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혼자 2골을 책임져 2-2 무승부를 이끌어냈다. 27일 몰도바전에서도 헤딩으로 1-0으로 승리하는 결승골을 넣은 김신욱은 A매치 3경기 연속 골로 신대용(48) 감독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냈다. 신 감독은 몰도바전 출전멤버에서 많은 변화를 주며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 공격수는 김신욱과 이근호(강원)가 맡았다. 이근호는 프리킥로 활동반경을 넓혀 플레이했다. 미드필드는 이재성~손준호(이상 전북)~정우영(비셀 고베)~이창민(제주)으로



30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 마르단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대한민국-자메이카의 평가전에서 한국의 김신욱(오른쪽)이 A매치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한 뒤 동료 김성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구성됐다. 포백은 김진수(전북)~윤영선(상주)~장현수(FC도쿄)~최철순(전북), 골키퍼

는 김승규(비셀 고베)가 나섰다.

한국은 전반 시작 5분여 만에 장현수가 볼

처리에 실패하며 자메이카의 댄 웰리에게 기습 중거리 슛을 내주는 바람에 먼저 골을 허용

했다. 하지만 이후 볼 점유율을 높여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았다. 양쪽 풀백들의 공격 가담을 통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여러 차례 올리며 꾸준히 득점 찬스를 잡았다.

전반 12분 이근호, 22분 김신욱, 28분 이재성이 연속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볼은 아쉽게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았다. 전반 30분에는 이재성의 원발 슛이 오른쪽 골포스트를 살짝 빗겨나갔다.

전반 마무리슛의 정확도가 떨어졌던 한국은 후반 시작 10분 만에 김신욱의 헤딩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오른쪽 측면에서 최철순이 올린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마무리해 자메이카의 골문을 열었다. 7분 뒤 김신욱은 정우영의 크로스를 또 헤딩슛 역전골까지 책임졌다. 이후에도 자메이카를 몰아붙인 한국은 후반 27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을 했다. 중앙 돌파를 허용하자 말리게 포스터가 오른 발 중거리 슛으로 한국의 골문을 열어 결국 2-2로 비겼다.

최용석 gtyong@donga.com

블루 데얀 1골·1AS…수원 ACL본선행 확정

새 얼굴 바그닝요·임상협·이기제도 골
수원, 베트남 복병 탄호아에 5-1 완승



K리그1(클래식) 수원 삼성이 힘차게 2018시즌을 열어젖혔다. 수원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탄 호아(베트남)와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PO) 홈경기에서 5-1로 승리했다. 전반 막판까지 쏟아진 함박눈과 딱딱하고 미끄러운 잔디. 맹추위 속에서 펼쳐진 부담스런 단판승부를 대승으로 마무리 한 수원은 ACL 본선 여정에 합류한다. 수원은 다음달 중순 시작할 조별리그(H조)에서 시드니FC(호주)~상하이 선화(중국)~가시마 앤틀러스(일본)와 대회 16강 진출을 다툰다.

●강렬한 영입생 퍼포먼스

겨울 선수이적시장에서 수원은 지난해까지 함께 한 브라질 골게터 조나탄의 중국 슈퍼리그 이적을 계기로 전면적인 선수단 개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바그닝요~크리스토프(이상 브라질), 임상협, 이기제가 합류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다. 수원의 영원한 라이벌 FC서울에서 무려 8시즌을 뛰었던 데얀(몬테네그로)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입단했다. 친정팀에 쓰라린 아픔을 안기며 푸른 유니폼을 입은 데얀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탄 호아와의 경기는 이들의 데뷔무대였다. 수원은 이적생들을 전원 투입했다.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대부분이 공격 포인트를 올려 빈란을 꿈꾼 상대를 울렸다.

최전방이 특히 눈부셨다. 불편한 0-0 흐름이 이어진 전반 44분을 기점으로 수원의 맹폭이 시작됐다. 임상협이 오른쪽 측면에서 직접 띄운 크로스를 바그닝요가 탄 호아 골키퍼 무릎 사이로 쏘아 넣었다. 전반 추가시간 추가골이 대단했다. 바그닝요가 살짝 뒤로 흘린 볼을 데얀이 상대 문전 오른쪽 모서리 지역으로 밀어넣고, 이를 임상협이 미끄러지며 슛을 날려 골망을 갈랐다.

승기를 잡은 수원의 화력은 후반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후반 4분 임상협이 문전 오른쪽에서 볼을 뒤로 빼주자 바그닝요가 슬라이딩 슛으로 3번째 골을 만들었다. 8분 뒤에는 측면 수비수가 일을 저질렀다. 왼쪽 풀백 이기제가 염기훈의 어시스트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확실한 데얀 효과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18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수원 삼성-탄호아(베트남) 경기에서 이적생 데얀이 팀의 5번째 골을 넣은 뒤 서포터들을 향해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역시나 가장 눈길을 끈 이는 데얀이었다.

한동안 영점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반 19분 헤딩으로 수원에서의 첫 번째 슛을 시도한 데얀은 11분 뒤 바그닝요의 리턴패스를 받아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발 킁을 날렸지만 골대 모서리를 맞았다. 후반 3분 노마크 찬스에 이은 솜타저 살짝 벗어났다.

곳은 날씨를 뚫고 경기장을 찾은 홈 관중

4000여명이 기대한 장면은 4-0으로 앞선 후반 종료직전 탄생했다. 바그닝요의 낮은 크로스를 문전 한복판에서 땅볼 슛을 시도해 드디어 골네트를 뚫었다.

데얀의 활약이 1골·1도움에 국한된 건 아니다. 90분 내내 활발히 탄 호아 진영을 누볐다. 상대 수비진이 데얀의 이동경로, 위치에 따라 와해됐다. 공격 2선과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효율적으로 일어

던 것도 데얀이 수비수들을 끌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적생들이)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어도 전술훈련을 꾸준히 했다. 데얀에 의한 득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서 감독은 “휴식기부터 몸을 만들었더라. 기왕이면 골을 터트려 부담을 덜고 진짜 시즌을 대비했으면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활짝 웃었다.

수원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현장 리포트

함박눈·영하의 날씨 혹한기 실감한 90분

대단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쳐왔다. 좀처럼 수온주가 올라가지 않는 영하권 기온에 맹렬한 바람이 더해졌다. 건조하고 살을 에는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수도관이 터지는 등 동파 사고가 속출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경기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K리그1(클래식) 수원 삼성과 탄호아(베트남)의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PO) 단판승부.

승자는 대회 조별리그(32강)에 입성하기에 결코 몰라설 수 없던 매치 업은 진정한 ‘혹한기 축구’였다. 다행히 추위는 다소 누그러졌다. 킥 오프 시간(오후 7시 30분)을 즈음한 경기장 주변 기온은 영하 1~3도를 오갔다.

전날보다 7도 가량 올라갔다. 바람도 덜 불었다. 물론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다. 정오를 즈음해 흘날린 싸락눈은 점차 함박눈으로 변했다. 경기장 안팎이 급세 하양계 변했다. 바다까지 얼어붙은 그라운드에는 대형 방수포를 덮어놓았음에도 딱딱했고, 살얼음이 끼인 잔디는 날카로웠다.

전날(29일) 경기감독관 알리 지브릴(팔레스타인)은 “좀더 물을 뿌리라”고 지시했으나 풍광 얼어붙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것은 무리였다.

수원이 가장 걱정된 부분은 날씨였다.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 추위 속에 선수들의 정상급 경기력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

상대는 더했다. 지난주 이스턴SC(홍콩)와 1차 PO 원정을 이겨 수원에 도착한 탄 호아는 피로가 만만치 않았다. ACL 출전 팀들은 일정 항공편을 미리 예약하지만 국제경험이 전무한 탄 호아는 예상치 못한 한국행에 대책을 세우지 못해 출국 항공편을 분리했다. 전원이 숙소에 모인 건 29일 새벽녘이었다. 연중 내내 고온다습한 베트남이나 눈을 뵈거나 뱀속 깊은 추위를 느껴왔던 탄 호아 선수들은 전무했다. 방한대책도 딱히 없었다. 점퍼는 지참했지만 유니폼 속에 반치는 타이즈를 준비하지 못해 수원 선수단에서 대여했다.

수원 구단은 아예 스포츠용품 매장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와중에 마리안 미하일(루마니아) 감독과 선수 2명은 AFC가 발급한 AD카드조차 지참하지 않아 경기감독관에게 사정해 경기장에 입장했다. AD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수원 측 양해를 구했다. 첫 경험이 낯은 헤르닝이었다.

관전 여건도 좋을 수 없었다. 수원 구단은 흥행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중석 일부와 동파가 우려된 몇몇 화장실들을 폐쇄했다. 취재석도 비어있는 경기장 스카이라프소 옮기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원 관계자는 “부상 우려가 큰 그라운드다. 두 팀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혹한기 축구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수원 | 남정현 기자

황일수, 울산 입단 확정

엔벤FC와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

K리그1(클래식) 울산 현대가 토종 공격수 황일수(31)의 영입을 30일 공식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스포츠동아가 단독 보도한지 1개월여 만이다.

시원스러운 드리블 돌파와 힘을 갖춘 황일수는 2010년 대구FC에 입단해 상주 상무~제주 유

나이티드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 엔벤FC(중국)로 향해 슈퍼리그에서 반 시즌을 소화했다. 이미 울산의 포르투갈 동계전지훈련 캠프에 합류했으나 구단의 공식발표가 다소 늦어진 이유가 있다. 많은 러브 콜에 고민하다 울산을 택했으나 선수와 엔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슈퍼리그는 아시아권까지 포함해 외국인선수 5명을 보유, 3명을 출전시켰으나 올해부터는 4명 보유에 3명 출전으로 규정을 바꿨다. 엔벤이 속하게 된 갑(甲·2부)리그는 3명 보

유에 2명이 출전해야 한다. 중국축구협회가 자국 선수 보호와 어린 선수 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의 여파다.

어쩔 수 없이 외국인선수 일부를 정리해야 했던 엔벤은 결국 원활한 계약해지 절차를 밟기 위해 황일수와 논의를 해야 했고 이제야 최종 결론이 나왔다. 황일수는 “울산에는 같은 포지션에 좋은 동료들이 많다. 경쟁보다 오히려 시너지도 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남정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수원 | 남정현 기자